



2021년 말 농가 인구가 2,21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이며, 65세 이상이 46.8%로써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1차 베이비 붐 세대(1955년~1963년생) 705만 명과 2차 베이붐 세대(1964년~1974년생) 954만 명(전체 인구의 18.6%)이 은퇴기를 맞아 도시인의 귀농 또는 귀산촌 인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귀농·귀촌인들이 발작물을 재배할 때 잡초 발생 억제 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대부분 멀칭 비닐을 사용하므로, 수확 예정인 고춧대, 깻대, 옥수수대, 콩대, 수숫대, 팔대 등 폐비닐과 함께 태우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수농사도 고산지역 과수재배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여름 순치기(적심), 가을철 전정 부산물, 갈반병·부란병·적성병 등 피해를 입은 낙엽 등은 다음 해 병해충 예방을 위해 과수원 밖으로 이동조치, 매물 또는 목시적인 불법 태움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년 봄에는 농사 폐기물 파쇄를 위해 행정력을 투입하여 산불피해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가을철에도 더욱 세밀한 준비로 산림 인근의 농경지(과수원 포함)를 대상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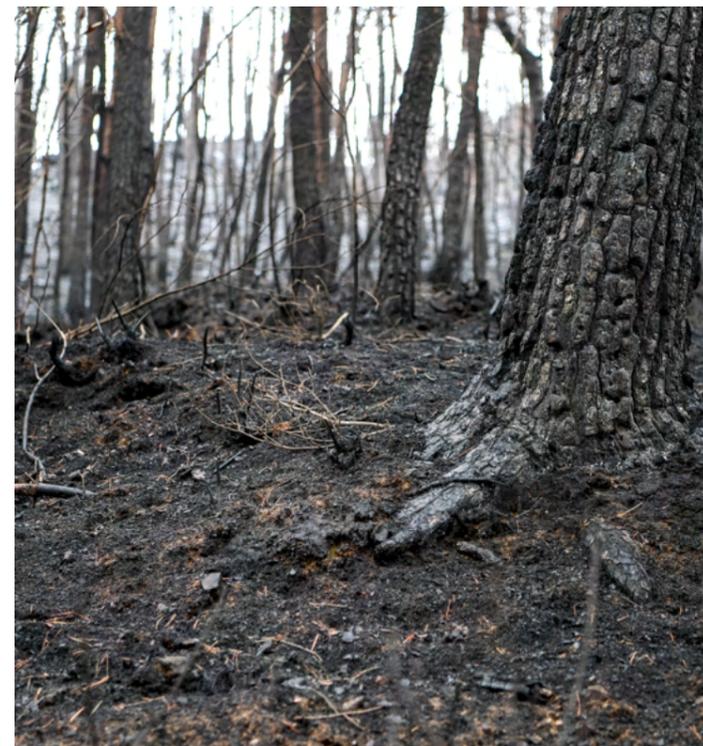


정회원 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태움 산불”

글_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정 병 걸

산불(forest fire)의 3대 요소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단편적으로 산소와 열, 연료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인자 중 어떤 것 하나만 제거하면 산불은 중지된다. 산소와 열은 논외(外)로 하고, 우선은 연료를 차단 또는 제거하여 개체 수를 줄여 준다면 매년 산불건수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태움(소각: 燒却) 산불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2014~2023년)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은 총 566건, 4,003ha 중 (입산자 실화) 186건, 688ha, (농산부산물 소각) 68건, 78ha, (쓰레기 소각) 71건, 242ha, (담뱃불 실화) 33건, 174ha 등이 있다. 여기서 불태움으로 인한 피해가 139건(25%), 320여 ha(8%)의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여 지금도 아픈 상처가 아물고 있는 중이다.



필자의 영농경험에 의하면, 농사 폐기물 줄기에 수분이 함유하고 있을 때 잘 파쇄되며, 먼지 날림이 적고 기계 칼날의 마모가 덜하다. 멀칭 폐비닐도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면 삭아서 수거가 어렵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파쇄 시기는 수확 이후부터 12월 말까지가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폐비닐도 함께 수거 처리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

특히 산촌의 농가에서 가을철에 경운하는 지역은 미리 마을 과민 관 합동으로 수거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운영했으면 한다. 작업 실행 이전에 영농 부산물을 수거하는 방법이 관건이지만 파쇄하여 토양 지표면에 뿌린 후 경운하면 건강한 토양의 비배관리 등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방지 및 산사태 방지, 산림병해충 방지 등 3대 산림재난에 대한 “가칭” 「산림재난방지법」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재난별로 운영 중인 산재한 협회 등의 기관을 통합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 공단’을 설립하여 산림재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여 기대가 크다. 산림재난은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고 산림생태계 질서를 교란케 하지만,

사전 예고가 없이 발생하니 최우선은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매년 산불의 발생 원인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논·밭두렁 또는 쓰레기 태움 산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산림재난 관련 기관, 농업인, 임업인 등 민·관 합동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태움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다가오는 산불철은 잘 지나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